



미디어 이용 중재에 대한 어머니의 자기 인식과 평가

초등학생 가정을 중심으로 한 질적 탐색

정윤경 순천향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오연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책임연구원

김경희 한림대학교 미디어스쿨 교수

Mother's Self-awareness and Assessment of Media Mediation*

A Qualitative Study Focused on Elementary School Families

Yoon Kyung Chung**

(Professor, Media Communication, Soonchunhyang University)

Yeon Ju Oh***

(Principal Manager,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Kyung-Hee Kim****

(Professor, The Media School, Hallym University)

The media environment is changing rapidly, posing challenges for parents in staying abreast of the latest developments and raising concerns about the potential negative effects of media material. Moreover, with media exposure starting in infancy and early childhood, parental intervention in media usage has become increasingly crucial compared to previous times. In this context, this study aims to the characteristics of children's media consumption and parental intervention in households with children attending elementary school. It also attempts to explore the factors that lead parents to use specific forms of mediation and the ways in which they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se mediations. The study also examines how parents who have observed and experienced their children's media use evaluate existing types of mediation and explore which mediation is appropriate for today's media landscape. To accomplish this, the study employed a social living lab methodology in which parents observed their children's media use over a period of time and subsequently analyzed their own

* This study is based on the data of the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NCRC)'s 2022 Child Policy Impact Assessment on Broadcast Contents Review Policy(이 논문은 아동권리보장원 <2022년 아동정책영향평가 방송콘텐츠 심의정책 전문영향평가>보고서의 데이터를 재분석하여 작성한 것임).

** ykchung@sch.ac.kr, first author

*** oyeonj@nia.or.kr

**** khkim@hallym.ac.kr, corresponding author

methods of guiding and moderating such usage. The study found that restrictive mediation was most prevalent in families with elementary school-aged children, and that restrictive mediation took the form of completely blocking access to media, suggesting that parental mediation is becoming more authoritarian and controlling than in the past. After observing their children's media use, parents recognized the limitations of their previous restrictive mediation and shared their perceptions that the level of language in children's content and the sensationalism and violence of advertising were inappropriate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addition, they recognized the significance of media literacy through shared experiences and dialogue with their children. Furthermore, they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autonomy-supportive mediation, particularly in the current media landscape where involuntary exposure to recommendation algorithms is prevalent. This study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policy on the mediation of media use. Subsequent studies should prioritize examining the evolving and expanding nature of restrictive mediation in light of the changing digital media environment, as well as strategies for mitigating the impact of media in the context of declining co-viewing. It should also consider the negative consequences of focusing on restrictive parental mediation in media use. Ministries formulating media-related policies have conducted their own research on the impact of parental mediation on children's media use, but have failed to formulate policy recommendations commensurate with the findings. This is probably due to the limited access to education and awareness programs for parents, as opposed to children who can be reached through schools. This is reflected in the fact that most policy initiatives for parents consist of one-off training sessions or the production and dissemination of parenting guides. There is a need to support research that improves our understanding of children's and parents' media use and mediation, and to translate findings into systematic policy recommendations.

Keywords: Media Mediation, Parental Media Guidance, Elementary School Children, Restrictive Mediation, Autonomy-supportive Mediation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이용 중재의 주체인 부모가 자녀의 미디어 이용 중재에 대한 스스로의 역할을 성찰하고 개인화된 미디어 이용 환경에 필요한 중재 방식을 찾아가는 과정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부모가 자녀의 미디어 이용 중재 방식을 일정 기간 관찰한 후 미디어 이용 중재 방식을 스스로 성찰하게 하는 소셜리빙랩 방법을 활용했다. 연구 결과,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제한적 중재방식이 주로 활용됐는데, 제한적 중재가 전면적 미디어 차단으로 전개되어 과거보다 권위주의적, 통제적 부모 중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녀들의 미디어 이용을 관찰한 이후 부모들은 어린이 대상 콘텐츠에 나오는 표현의 수위와 광고의 선정성 및 폭력성이 초등학교생에게 적절하지 않다는 인식을 공유함으로써 그동안 실천해 온 제한적 이용 중재의 한계를 알게 됐다. 또 이용 경험을 공유하고 자녀와의 대화를 통한 미디어 중재방식의 중요성도 깨달았다. 이와 함께 알고리즘에 의한 비자발적 노출이 빈번해진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서는 자율성-지지적 중재가 더 유용하다는 점도 알게 됐다. 이러한 결과는 미디어 환경 변화와 이용 중재 방식에 대한 부모 대상 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핵심어 : 미디어 이용 중재, 부모 이용 중재, 초등학교생, 제한적 이용 중재, 자율성-지지적 이용 중재

1. 문제 제기

아동의 미디어 이용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2022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12세 아동이 만1~6세부터 스마트기기를 통해 직접 TV 콘텐츠를 선택하여 보기 시작한 비율은 4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낮아질수록 그 비율은 증가하여 7~9세 아동 중 57.2%가, 4~6세 아동 중 79.3%가 만1~6세부터 스마트기기로 직접 TV 콘텐츠를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동이 스마트기기로 자신의 선호에 따라 콘텐츠를 선택하여 소비하는 시기가 점점 앞당겨지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10대의 74.0%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매일 또는 일주일에 5~6일 이용하며, 92.6%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서비스를 이용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동이 점차 이른 시기부터 개인화된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함을 보여준다(방송통신위원회, 2022).

개인화된 콘텐츠 소비는 비단 아동에게서만 발견되는 특징은 아니다. 〈2022년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자녀의 부모 세대로 여겨지는 30대와 40대의 각각 61.0%와 55.3%가 매일 또는 일주일에 5~6일 OTT 서비스를 이용하며, 각각 84.6%와 89.0%가 주 이용기기로 스마트폰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인 2017년 OTT 서비스를 매일 또는 일주일에 5~6일 이용하는 30대와 40대의 비율이 각각 13.7%와 9.4%에 머무르고, 유튜브를 제외한 OTT 서비스의 이용률도 낮았던 것(방송통신위원회, 2017)과 비교하면 매우 큰 변화이다. 현재 가정 내의 콘텐츠 소비 행태가 상당히 개인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 확산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오늘날의 미디어 환경은 부모가 아동의 미디어 이용을 중재하는 데 있어 다양한 도전과제를 부여한다. 과거와 다르게 장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콘텐츠가 많아지고, 같은 장르, 같은 연령 등급이어도 그 내용이 다양하여 아동이 시청하기에 적절한 프로그램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아동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은 아동에게 유해한 콘텐츠를 추천하기도 하는 것으로 보고된다(Papadamou et al., 2020; Tech Transparency Project, 2023). 이런 가운데, 초등학교생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방식은 보고 싶은 내용이나 주제를 검색창에 검색하여 시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으나(60.5%), 유튜브가 추천하는 동영상을 시청하거나(33.4%), 구독하는 채널에서 제공하는 동영상을 시청하는 비율(25.6%)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배상률·이창호·이정림, 2020, 112쪽). 이에 더해, 미디어 채널과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공적 규제나 자율규제도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OTT의 경우 공적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프로그램 공급자들이 자율적으로 연령 등급을 정해 표기하고 있어, 시청 결정은 오로

지 아동과 부모의 자율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미디어 환경을 고려하면 오늘날 부모의 미디어 이용 중재는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 그 중요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화된 콘텐츠 소비 환경으로 부모들이 자녀가 이용하는 콘텐츠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미디어 이용 중재를 적절히 수행하기는 어렵다. 부모들이 가장 빈번하게 실행하는 미디어 이용 중재는 스마트폰의 사용 시간을 제한(58.2%)하거나 특정 콘텐츠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72.2%)하는 것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20가구를 대상으로 수행한 질적 조사에서도 부모들은 앱을 사용하여 자녀의 미디어 이용 시간을 통제하거나, 특정 시간에만 미디어를 이용하는 규칙을 정하는 등 제한적 중재를 가장 많이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 콘텐츠 내용과 미디어 장단점을 논의하는 적극적 중재를 실천하는 가정은 20가구 중 13가구로 비교적 많았지만, 대부분 미디어의 단점을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이야기하는 데 그쳤으며, 콘텐츠를 함께 보는 공동 이용을 실천하는 가정은 20가구 중 3가구에 불과했다(이창호, 2021).

자율적인 미디어 이용 습관을 증진하기 어렵다는 제한적 중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시청 제한 지도는 청소년의 유튜브 이용의 3가지 차원(시간, 장소, 콘텐츠) 모두에서 이용 시간을 줄이는 데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윤정·이중혁, 2021). 그러나 아동의 미디어 이용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복잡한 미디어 환경에서 아동이 미디어를 건강하게 소비하고 올바른 미디어 이용 태도를 형성하는데 한계가 있다. 아동이 소비하는 콘텐츠가 점차 다원화되고 유해 콘텐츠에 대한 노출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미디어 이용 시간뿐만 아니라 소비 콘텐츠에 초점을 맞춘 중재도 요구된다. 콘텐츠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중재 방식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미디어 이용행태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아동이 언제 어디에서 어떤 미디어를 이용하고, 그들이 자주 이용하는 콘텐츠의 등장인물과 스토리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정에서 아동 미디어 이용과 중재는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부모들이 특정 중재 방식을 채택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해당 중재 방식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직접 관찰하고 경험한 부모들은 기존의 미디어 이용 중재 방식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분석하고, 오늘날의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미디어 이용 중재 방식이 무엇인지 탐색한다.

2. 문헌 연구

1) 미디어 이용자 및 콘텐츠 내용의 변화

(1) 초등학생과 학부모의 개인화된 미디어 이용

2019년에 실시한 10대 청소년 미디어이용조사에 따르면, 초등학생 응답자의 78.0%가 지난 1주 일간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한 적이 있으며, 그 중 96.1%는 유튜브를 이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19, 58쪽). 1년 뒤인 2020년에 실시한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초등학생들의 유튜브 이용이 더 많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연구 대상이 다르고 질문이 달라 단순 비교하기 어렵지만, 2020년 조사에서는 초등학생 90.3%가 유튜브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배상률 외, 2020, 106쪽), 이용률이 1년 만에 10%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

초등학생들의 유튜브 이용 시간을 살펴보면, 유튜브를 매일 이용하는 초등학생이 43.5%, 일주일에 3~4일이 22.5%, 일주일에 5~6일이 17.2%를 차지해, 초등학생 83.2%가 일주일에 3일 이상 유튜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배상률 외, 2020, 106쪽). 유튜브는 남녀 구분 없이 초등학생이 가장 좋아하는 미디어였으며, 초등학교 4학년생의 84.2%, 초등학교 5학년생의 90.0%, 초등학교 6학년생의 95.7%가 유튜브를 이용하고 있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유튜브 이용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초등학생들은 유튜브를 주로 비학습용으로 이용했는데, 주중과 주말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비학습용으로 유튜브를 시청하는 비율이 각각 23.8%, 29.3%를 차지했다.

초등학생들이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 시청하는 콘텐츠의 주제를 살펴보면, 주로 시청하는 주제는 게임(62.4%), 음악/댄스(40.2%)였으며, 먹방/쿡방(28.8%), ASMR(26.9%), 애니메이션(26.4%), TV드라마/예능(26.0%)도 높게 나타났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19, 58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에서도 초등학생들이 유튜브에서 가장 많이 시청하는 주제는 게임이었고, 코미디/예능TV프로그램, 음악/댄스 콘텐츠의 이용도 높았다(배상률 외, 2020, 107쪽). 이 외에 만화/애니메이션(4위), 몰카/웃긴 영상(5위), 먹방/요리(6위), 영화/TV드라마(7위), 동물/펫방(8위)이 후순위를 차지하였으며, 초등학생 절반 이상이 이런 주제의 콘텐츠를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코미디/예능 TV프로그램과 영화/TV드라마, 만화/애니메이션이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을 보면 초등학생은 고전적 영상 콘텐츠도 꾸준히 소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콘텐츠를 소비하는

플랫폼은 달라졌을 수 있지만,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시 초등학생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디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20년 학부모 2,530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를 1순위 또는 2순위로 이용한다고 응답한 학부모들의 하루 평균 유튜브 이용 시간은 29.65분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를 1순위 또는 2순위로 많이 이용하는 초등학생들의 유튜브 이용 시간(하루 평균 35.44분)보다는 적었지만, 학부모들의 유튜브 이용 시간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배상률 외, 2020, 94-95쪽).

실제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2022년 실시한 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현재 초등학생들의 학부모 연령대인 30대의 80.3%, 40대의 76.9%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지난 일주일 동안 이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 이용자의 96.7%가 유튜브를, 34.6%가 넷플릭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로 통해 볼 때 초등학생 학부모들의 대부분이 동영상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22, 123쪽). 특히 초등학생 자녀의 부모 세대인 30대와 40대가 주 이용기기로 스마트폰을 꼽은 비율이 각각 84.6%와 89.0%였다는 조사 결과(방송통신위원회, 2022)를 통해 볼 때, 초등학생 학부모들 역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와 넷플릭스를 나홀로 시청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개별적으로 미디어를 이용하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사실은 학부모들이 자녀가 어떤 콘텐츠를 보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가족들이 모여 앉아 텔레비전을 같이 시청하며 프로그램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공유했던 과거와는 달리, 가족들이 각자 스마트폰으로 콘텐츠를 이용하는 환경에서는 자녀들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학부모들의 이해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다. 관심이 높은 학부모들 역시 자녀가 시청하는 미디어 콘텐츠 주제를 아는 정도에 그칠 뿐, 자녀들이 보는 콘텐츠의 등장인물이 어떤 특성을 보이며 어떤 줄거리가 전개되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 자녀에 대한 학부모들의 미디어 이용 지도는 과거보다는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2) 미디어 콘텐츠의 유해성 심화

문제는 초등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 콘텐츠와 TV 콘텐츠가 점점 더 선정적, 폭력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점이다. 유튜브 공간에서 폭력이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에 관한 영상들의 연결망 분석 연구에 따르면, 2014년 영상들은 상대적으로 학교폭력 이슈에 집중됐으나, 2016년과 2018년에는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 등 다양한 폭력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임연수, 2020). 또 이 연구에서는 유튜브 공간에서 폭력 문제를 주도하는 채널들이 ‘폭력 예방을 위한’

정부 기관에서 ‘상업적 목적을 위한’ 개인 크리에이터들로 변화해 가는 양상도 발견되었다. 특히 2018년 들어서는 전문 유튜브 채널들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채널 수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폭력 문제를 오락적 볼거리로 이용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고 한다. 이런 경향은 비단 개인 유튜브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종합편성채널에서도 학교폭력을 소재로 연애 심리를 다루는 오락 프로그램이 제작되는 등 공익적 가치의 실천으로 볼 수 없는 영상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임연수, 2020). 점점 더 폭력적인 내용의 유튜브 콘텐츠들이 많아지고 있으며, 폭력적인 내용은 개인 유튜브뿐만 아니라 텔레비전 채널의 콘텐츠에서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또 국내 인터넷 개인방송의 양대 플랫폼인 유튜브와 아프리카TV에서 동시에 활동 중인 토크/캠방방송 장르 대표 창작자 4명의 방송 영상 100개의 내용을 총 328개의 맥락으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연구를 보면, 분석 대상 중 혐오 발언이 등장한 맥락의 수가 204개나 되었으며, 혐오 발언이 등장한 발언 맥락의 대화 주제는 대화/소통(25.0%), 외모/뷰티(17.6%), 오락/이벤트(16.2%) 등으로 나타났다(김지수·윤석민, 2019). 누구나 가볍게 즐길 수 있는 대화나, 뷰티, 오락콘텐츠에서 혐오 표현이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여성 10대들이 즐겨보는 인기 채널 16개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세 명의 남성 친구가 서로를 속이고 놀리면서 각자가 망가지고 괴롭힘을 당하는 과정을 통해 웃음, 조롱 등을 유발하는 콩트 채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남성 성기 관련 유머를 포함한 성적 농담, 나체를 몰래 촬영하는 것 역시 중요한 웃음 장치로 사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다른 인기 채널에서는 친구가 통화하는 중간에 옆에서 신음 소리 내기, 샤워 중 친구에게 오줌 싸기, 야동을 보다가 누나에게 들킨 일화, 친구 ‘고추’에 불 지르기, 근육남에게 친구의 팬티를 판매하기, 친한 친구를 전동 팬티로 괴롭히기 등 성기 중심적인, 혹은 성적인 장난을 다루는 콘텐츠가 전체 콘텐츠의 1/3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김애라, 2023).

초등학생들이 많이 보는 애니메이션도 예외는 아니었다. 중국에서는 애니메이션 〈부니 베이어〉¹⁾에 나오는 한 장면을 모방해 2살 반쯤된 남아가 도끼로 자신의 손가락을 자른 사건, 9살 남자 어린이가 전기톱으로 학우에게 상처를 입히는 사건 등 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낙곤·김홍균, 2020). 그러나 〈부니 베이어〉가 애니메이션 장르라는 점이나 숲속에 사는 두 마리 곰 형제가

1) 〈부니 베이어〉는 화치양(華強) 디지털 웹툰회사에서 출판한 장편 애니메이션으로 숲속에 사는 두 마리 곰 형제가 산림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벌목꾼 로거 빅과 맞서 싸우는 이야기를 다루었다. 두 마리 곰 형제와 벌목꾼이라는 상호 적대시하는 캐릭터를 부각하고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의 선명한 인물구조 대립 관계를 설정해 폭력적인 내용을 간단하고 심플한 방식으로 표현한다(낙곤·김홍균, 2020, 119쪽).

산림 자원 보호를 위해 벌목꾼과 맞서 싸우는 줄거리만으로는 캐릭터 이미지가 초등학생들의 미적 기준에 부합한 것인지, 폭력적인 내용과 언어가 포함됐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부니 베어〉는 TV 방송에서 큰 인기를 얻었고 영화 버전 애니메이션에서도 흥행에 성공했는데, 이 애니메이션의 5회분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언어 및 행위폭력 등의 장면이 69번에 달했고, 그 중 주인공의 폭력 행위가 41번으로, 전체 폭력 장면의 5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낙곤·김홍균, 2020). 이와 같은 분석 내용을 고려할 때, 권선징악을 다루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 매개가 폭력이라는 점에서 초등학생들의 가치관 형성에 좋은 영향을 주는 콘텐츠라 보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통해 보면, 초등학생들과 학부모들 모두 스마트폰을 통해 유튜브 등 동영상 플랫폼을 개인적으로 소비하는 이용 행태가 보편화되고 있으며, 초등학생들이 즐겨보는 유튜브의 콘텐츠들은 더 선정적이고 폭력적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콘텐츠의 주제만으로는 그 내용이 초등학생들에게 적합한지를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초등학생들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부모 중재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미디어 이용에 관한 부모 중재

미디어 이용에 관한 부모 중재 이론은 미디어가 자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가 다양한 전략을 사용함을 가정한다(Clark, 2011). 미디어 중재 이론은 한편으로는 미디어의 부정적 영향에 관심을 둔다는 점에서 미디어 효과 및 정보 처리 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 방식을 탐색한다는 점에서 대인 커뮤니케이션 이론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Clark, 2011; Shin & Ismail, 2014). 부모 중재에 관한 이론적 관심과 논의는 주로 텔레비전의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되었으나(Barcus, 1969; Brown & Linne, 1976; Mcleod, Fitzpatrick, Glynn, & Fallis, 1982), 대부분의 미디어 콘텐츠를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소비하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여겨진다(Ho, Lwin, Chen, & Chen, 2020). 최근에는 미디어를 처음으로 접하는 시기가 빨라지고 제도 교육으로의 진입 전 가정에서 수행해야 할 미디어 중재 및 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하면서, 부모 중재에 관한 연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안정임, 2013).

부모 중재에 관한 연구는 주로 중재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자녀의 미디어에 대한 인식, 태도, 행동 양상에 초점을 맞춘다. 초기의 연구는 부모의 중재 유형을 제한적(restrictive) 중재, 적극적(active) 중재,²⁾ 공동 시청(co-viewing) 등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2) 적극적 중재는 설명적(시청)중재, 평가적 지도, 긍정적 중재로도 부른다(조연하·배진아, 2010).

(Nathanson, 2001; Warren, 2005). 제한적 중재는 자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노출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특정 내용의 콘텐츠, 특정 시간대의 미디어 이용, 일정 시간 이상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제한을 모두 포함한다(김한·장병희, 2022; Chen & Chng, 2016; Lee, 2013; Valkenburg, Krcmar, Peeters, & Marseille, 1999). 적극적 중재는 미디어 콘텐츠에 관한 자녀의 지식, 태도, 행동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콘텐츠에 대한 부모와 자녀 간의 토론을 통해 비판적 수용 능력을 향상하고 미디어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민감도를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Fikkers, Piotrowski, & Valkenburg, 2017; Linder & Werner, 2012). 공동 시청은 토론 없이 부모가 자녀와 미디어 콘텐츠를 동시에 소비하거나 공유하는 방식을 말한다(Ho et al., 2020).

비교적 최근의 연구들은 제한적 중재, 적극적 중재, 공동 시청 등 텔레비전 이용에서 나타나는 전형적 중재 방식이 디지털 미디어 중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지 탐색해 왔다. 조연하와 배진아(2010)는 초·중·고교생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초점그룹인터뷰에서 디지털 미디어 이용과 관련하여 제한적 중재가 지배적임을 발견하였다. 또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중재는 그 방식별로 효과 유무의 차이가 있더라도 자녀의 스마트 미디어 이용 시간을 줄이고(김지선·이강이, 2019; 박인서·백영민, 2021), 미디어 과의존 경향을 낮추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음(고은혜·배상률, 2016; 신수아·김지현, 2023; 이채진·이영신, 2021)을 알 수 있다. 또한 부모 중재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접촉과 관련된 위험 예방(Shin & Ismail, 2014), 사이버 괴롭힘 예방(Chen, Liu, & Tang, 2023), 온라인상의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 향상(Corcoran, Shaffer, Warner, & Gabrielli, 2022),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관리(Shin & Kang, 2022)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는 부모 중재가 디지털 환경에서도 유효함을 입증하고, 부모 중재의 효과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그러나 초기의 부모 중재 연구는 몇 가지 측면에서 비판받아 왔다. 우선, 제한적 중재와 적극적 중재는 여전히 주류 유형으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재의 방식을 단순화하는 문제를 지닌다. 특히 제한적 중재는 자녀를 지나치게 통제하는 부정적인 전략으로, 적극적 중재는 자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긍정적인 전략으로 이분화 된다. 그러나 제한적 중재와 적극적 중재는 그 자체로 선과 악이 아니며, 부모의 중재 실천에 있어 이들 전략은 종종 결합되기도 한다(Fikkers et al., 2017, Padilla-Walker, Coyne, & Collier, 2016). 피커스는 부모 중재 효과 연구가 일관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던 이유가 중재 전략을 단순화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부모 중재 연구의 대표적 주제인 폭력적 콘텐츠와 폭력 성향 간의 관계에서 제한적 중재와 적극적 중재는 나이 등의 표본 특성, 시간 흐름, 효과

실험 중의 처치 등에 따라 모순된 결과를 보이기도 한다(Gentile, Reimer, Nathanson, Walsh, & Eisenmann, 2014; Mattern & Lindholm, 1985; Nathanson, 2004; Nathanson & Cantor, 2000; Padilla-Walker et al., 2016).

발켄부르크는 부모 중재 이론과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을 결합함으로써 제한적 중재 및 적극적 중재를 자율성-지지적(autonomy-supportive) 중재, 통제적(controlling) 중재, 일관성 없는(inconsistent) 중재로 구분한다(Valkenburg, Piotrowski, Hermanns, & De Leeuw, 2013). 자기결정성 이론은 부모가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방식으로 가치와 규제를 전달할 때 사회화의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가정한다(Ryan & Deci, 2000). 해당 명칭이 암시하듯, 자율성-지지적 중재는 자율성을 인간 발달의 핵심 조건으로 간주하고 부모가 제한하는 미디어 이용에 관한 가치를 내면화하도록 중재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와 반대로, 통제적 중재는 처벌, 위협, 권한의 철회와 같은 방식으로 자녀의 미디어 사용을 제한하거나 차단한다. 통제적 중재는 자칫 제한적 중재에만 해당한다고 여겨질 수 있으나, 자녀의 의견이 고려되거나 존중되지 않은 채 부모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전달될 때 적극적 중재에서도 통제의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일관성 없는 중재는 주로 제한적 중재에서 발견되는 세부 유형으로, 이용 가능한 콘텐츠, 또는 미디어 이용 시간에 대한 불규칙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결정을 일컬으며, 부모와 자녀 간 갈등의 요인이자 자녀의 문제적 행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Gardner, 1989; Valkenburg et al., 2013).

발켄부르크는 제한적 중재라도 자율성-지지적 방식으로 이루어질 경우, 자녀의 저항이나 부메랑 효과가 최소화되며, 통제적 방식의 적극적 중재는 제한적 중재와 마찬가지로 저항을 일으키며 예상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가정한다(Valkenburg et al., 2013). 이러한 가정은 여러 실증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 자율성-지지적 방식의 제한적 통제는 폭력적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노출, 아동 관람 불가 콘텐츠에 대한 노출, 공격성, ADHD 관련 문제와 부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심재웅·강형철·송원숙, 2017; Fikkers et al., 2017; Nikken, 2018). 또한 자율성-지지적 중재는 광고 리터러시 및 방송프로그램 등급제의 실효성에 대한 인식 등 긍정적인 미디어 역량 및 규제에 대한 우호적 태도와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였다(송원숙·심재웅, 2016; Vanwesenbeeck, Walrave, & Ponnet, 2016).

초기 부모 중재 연구에 대한 또 다른 비판의 지점은 앞서 언급한 유형은 실제 양육 환경에서의 미디어 중재 방식을 모두 포괄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특히, 텔레비전과 같은 기존 미디어를 중심으로 발전해 온 중재 유형은 디지털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Livingstone & Helsper, 2008). 이에 기존의 유형을 재검토하고 확장하여 감시형,

교육적, 동행형 중재 등 디지털 미디어 이용과 관련한 새로운 중재 유형이 제안되었다(안정임, 2008; 이상선·이한화·조민경·임민정, 2023). 또한, 디지털 환경이 개인화된 콘텐츠 이용을 촉진하면서, 부모가 파악할 수 있는 자녀의 미디어 이용 범위, 내용, 시간을 파악하기 어려워졌다는 문제도 제기된다(안정임, 2013; 이숙정·전소현, 2011). 자녀의 미디어 이용 습관 파악이 어려워짐에 따라 기술적 중재가 중요한 유형으로 부상하였다. 기술적 중재는 자녀의 온라인 활동과 콘텐츠를 확인하고 제한하기 위해 검사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과 같은 비침입적 점검(Mesch, 2009), 비밀번호 공유 요청 및 소셜미디어 확인과 같은 권위주의적 감시(Ho et al., 2020) 등 세부 유형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또한, 부모는 하나의 중재 방식만을 선택하기보다는 복합적이고 모순적인 방식으로 중재를 실천함에 따라(조연하·배진아, 2010; Barkin, Richardson, Klinepeter, Finch, & Krcmar, 2006), 이러한 다차원적인 중재의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보다 전체적인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미디어 중재가 미디어 콘텐츠에 관한 자녀의 지식, 태도, 행동에 개입하는 것이라 볼 때, 부모 중재 연구는 적어도 부모가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잘 인지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은 부모가 자녀의 미디어 이용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기 매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부모는 성장기의 자녀가 어떤 콘텐츠를 소비하는가에 대해 주의 깊게 관찰하고 소통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모는 비로소 적절한 중재 방식을 모색해 갈 수 있다. 루티야노, 랜돌프와 박(Rutigliano, Randolph, & Park, 2023)은 근거이론방법을 통해 부모의 양육 방식에 대한 자기 인식이 양육 방식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설명한다. 미디어에 관한 부모 중재도 양육 방식의 영역 중 하나로, 중재 방식에 대한 자기 인식이 중재 방식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 스스로 중재의 현장을 관찰하고 성찰하는 시간이 중요한 이유이다.

기존의 부모 중재 연구에 나타난 또 한 가지 아쉬움은 이들 연구가 미디어 이용 시간, 미디어 과의존, 개인정보 침해, 사이버 괴롭힘 등 콘텐츠 소비로부터 야기되는 문제에 좀 더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부모 중재 이론의 원래 목적, 즉 부모의 중재를 통해 폭력적이고, 선정적이며, 사행성을 조장하는 문제적 콘텐츠의 영향력을 완화하는 방식을 드러내는 것에서는 다소 벗어난다. 따라서 선정화, 폭력화 되어가는 콘텐츠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어떻게 중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미진하다. 가정 밖 어디서나 콘텐츠 접속이 가능해진 환경에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현재의 미디어 중재 연구는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다. 온라인상에서 유통·소비되는 콘텐츠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이용 시간, 사이버 괴롭힘,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위험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부모 중재와 콘텐츠 소비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1) 연구 문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화와 개인 미디어가 일상화되고 있는 환경에서 콘텐츠의 부정적 영향력 완화를 위한 부모의 중재에 주목한다. 특히 미디어 이용 중재의 주체인 부모가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깊이 있게 경험하고, 중재의 작용과 반작용을 이해함으로써 미디어 이용에 대한 부모의 역할을 스스로 평가하고, 나아가 오늘날의 환경에 필요한 중재 방식을 탐색한다. 또한 본 연구는 부모가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근접 관찰하는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부모가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는 전통적 중재 방식의 효과에 몰두하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미디어 이용 시간 통제와 같은 제한적 중재는 미디어 과의존 경향성의 감소나 이용 시간에 대한 통제력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이용의 감소가 콘텐츠 수용에서 비롯되는 영향 감소를 의미하지 않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실제 경험하도록 하는 한편, 전통 미디어부터 온라인 미디어에 이르는 소비를 종합적으로 관찰함으로써 소비의 전 맥락을 파악하도록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부모의 양육 방식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관찰 및 성찰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다는 루티아노 등(Rutigiano et al., 2023)의 인식에서 출발한다. 부모 중재의 효과를 파악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개입을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중재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는 그러한 변화의 방법과 계기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부모의 중재 방식에 대한 자기 인식이 향후 중재 방식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부모에게 자기 인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통해 나타난 태도의 변화를 탐색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연구 문제를 설정한다. 첫째 연구문제에서는 미디어 이용 중재의 방식을 탐구한다. 자녀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부모의 관찰 이전 부모의 미디어 이용 중재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분석한다. 각 가정에서 중재 전략이 채택된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봄과 동시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방식의 중재를 복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자녀의 미디어 이용과 부모의 중재 방식 평가에 초점을 맞춘다. 자녀들이 실제로 이용하는 콘텐츠에 대한 지식을 획득한 이후, 기존의 미디어 이용 중재 방식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는 각 가정에서 구축해 온 미디어 중재 방식을 부모 스스로 평가함으로써 자기 성찰의 기회를 마련하고, 향후 중재를 모색하기 위한 단계이기도 하다. 세 번째 연구문제는 미디어의 부정적 영향력을 완화하기 위하여 어떠한 중재가 필요한가를 살펴볼

것이다. 이는 자녀의 미디어 이용 중재를 실천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통해 축적된 부모의 자기 관찰과 성찰이 미디어 이용 중재 방식에 가져온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며, 앞으로의 미디어 이용 중재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2) 연구 방법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라 미디어 이용 중재 방식 역시 변화를 거듭해 왔으며, 점차 부모가 자녀의 미디어 소비를 면면히 파악하기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이용 중재가 이루어지는 현장인 가정 공간에서의 관찰을 토대로 질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소셜리빙랩 방법을 도입하여 부모와 자녀가 기존의 미디어 이용 중재 방식을 일정 기간 실천하고 경험함으로써 부모 스스로 미디어 이용 중재 방식을 평가하게 하고, 이러한 성찰을 통해 부모가 제안하는 미디어 이용 중재의 방향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소셜리빙랩은 지역사회참여연구(community-engaged research)의 일환으로, 시민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조건에 대한 수용성을 확보하고, 그러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이 들로부터 통찰력을 얻는 연구 방법론이다(Franz, 2015). 즉, 소셜리빙랩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일상 속에 만드는 실험실로, 일상생활 공간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연구 참여자의 주도권을 강조하고, 연구 참여자와 연구자의 협력에 의한 지식 생산과 실천을 모색한다는 특징을 지닌 다(Gehlert & Coleman, 2010; Stack, 2013). 이러한 소셜리빙랩은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존 중재 연구의 자료 수집이 주로 계량적 연구 방법에 의존하는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부모와 자녀가 실제 가정과 사회의 맥락 속에서 미디어 중재의 문제를 파악하는 동시에 주체적이고 실천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정현산·조병영·권은선·김광희, 2021).

다만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제약 속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소셜리빙랩의 연구 방법론을 완벽히 준수하기는 어려웠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거주하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관찰과 실험의 기회는 증가하였으나, 외부인인 연구자가 각 가정에 함께 거주하며 연구에 참여하기는 어려웠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가정 내 직접 참여를 배제하는 대신, 비대면 회의 및 SNS를 통해 연구자와 참여자가 상시 소통함으로써 원활한 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가자들은 가정에서 줌(Zoom)을 통해 비대면 만남에 참가하였기 때문에, 집안 일상사나 자녀와의 상호작용이 그대로 드러나기도 하였다. 비록 소셜리빙랩의 원형을 그대로 적용하지는 못했지만, 가능한 일상의 삶이 비대면 만남에서도 유지되도록 했던 점, 연구자의 설계에 따라 참가자들이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일정 기간 관찰하고 자신의 미디어 중재를 평가하는

기회를 가진 점에서 소셜리빙랩의 의미를 준수하고자 하였다. 이는 기존의 심층인터뷰 중심의 연구들과 차별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참가자는 일차적으로 청소년 단체나 미디어 센터 등을 중심으로 조사 참여 의사를 지닌 학부모 섭외를 통해 구성하였다. 참여자는 어머니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가정에 머무르면서 자녀를 관찰해야하는 연구의 편의성, 최초의 양육자와 주된 양육자 역할이 여전히 어머니에게 위임되고 있다는 점(이소현·김윤희, 2020; Valkenburg et al., 1999; Van der Voort, Nikken, & Van Lil, 1992), 이러한 어머니의 양육 행동에 따라 아동의 미디어 이용이 달라진다는 점(박소영·문혁준, 2015; 장지우·김선희, 2020) 등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이후 일종의 눈덩이 표집 방식을 활용하여 조사에 참여할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참여자 자녀의 성별과 연령이 가능한 고르게 표집되도록 조절하였다.

최종적으로 소셜리빙랩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총 8명의 어머니들로, 30대 후반~ 50대 초반의 연령대로 구성되었다. 참가자 가정은 모두 한 명에서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으며, 자녀의 연령은 5세부터 13세로 이루어져 있었다. 자녀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는 만6세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총 10명이며, 여자는 만5세에서 초등학교 6학년까지 총 6명이었다. 구체적으로 소셜리빙랩 참가자 및 자녀의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본격적인 관찰에 앞서, 참가자들에게 자녀의 미디어 이용 관찰 방식 및 유의점 등을 설명하고, 그간 가정 내에서 이루어져 온 일상적 미디어 중재 방식을 분석하기 위해 1차 모임을 개

Table 1. Social Living Lab Participants

구분	어머니 연령	자녀 / 성별 / 학년구분			어머니 직업여부
A	42세	2남	남	초1	없음
			남	초3	
B	37세	2녀	여	5세	없음
			여	초2	
C	39세	1남	남	초2	없음
D	35세	2녀	여	7세	없음
			여	초2	
E	49세	2남	남	초5	없음
			남	중1	
F	51세	1남1녀	여	초3	있음
			남	초6	
G	41세	3남	남	6세	있음
			남	초2	
			남	초4	
H	41세	1남1녀	남	초2	있음
			여	초6	

최하였다. 1차 모임에서는 어머니들이 관찰 대상인 미디어에 대해 공통된 개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미디어 범주와 각각의 미디어를 지칭하는 용어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무료 지상파 방송과 유료 방송, OTT, 유튜브, 게임 등을 실제 사업자 명을 언급하면서 이해하도록 하였고, 모든 미디어 이용이 관찰의 대상임을 분명하게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거리두기 기간 동안 수행되었기 때문에 모임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단, 비대면 모임의 단점을 개선하여 참여자들의 적극성과 친밀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집단으로 나누어 모임을 진행하였다. 집단의 구분은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저학년 집단과 고학년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1차 모임은 2022년 8월 19일과 8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1차 모임 이후 참가자들은 가정 내에서 약 2주간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근접 관찰하는 기간을 가졌다. 이 기간에 각 참여자가 자녀의 미디어 이용 일시, 매체, 장르를 구체적으로 관찰하고, 이러한 내용을 관찰 일지에 기록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각의 콘텐츠 이용 시 자녀들이 보인 태도와 행동 특징도 일지에 기입하도록 하였다. 자녀가 이용하는 콘텐츠의 내용을 어머니들이 구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자녀가 시청한 콘텐츠에 대해 어머니 자신의 평가도 일지에 함께 기록하도록 하였다. 연구자와 어머니는 수시로 소통하면서 관찰 특이 사항이나 기타 돌발 상황에 대처하였다.

총 2주간의 관찰을 종료한 뒤 소집단별로 비대면 모임을 다시 개최하였다. 2차 모임에서는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실질적으로 관찰하면서 느꼈던 점을 중심으로 아동의 미디어 이용과 미디어 이용 중재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2차 모임은 2022년 9월 3일과 9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다. 각각의 모임은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인터뷰 이후 연구자는 녹취록을 읽으면서 기존 중재 방식 실행, 중재 방식에 대한 평가, 인식의 변화로 데이터를 구분하고, 각각의 항목에서 강조되는 내용, 반복적으로 제시된 요소들을 범주화 하였다. 이후 자녀의 수나 성별, 어머니의 직업 여부에 따라 요소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목록화 하였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들이 제출한 관찰 일지와 데이터를 대조하며 해석의 오류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전체 과정은 연구자간 여러 차례 토론을 거쳐 분석, 보완되었다. 참가자들이 제출한 미디어 일지에서 자녀들이 시청한 콘텐츠 내용을 정리하면 <Table 2>와 <Table 3>과 같다.

Table 2. Media Usage of Lower-Grade Kids during Social Living Lab

이용 매체	자녀 성별	이용 채널 및 콘텐츠 명
방송	남	없음
	여	- 투니버스 <브레드 이발소>, <신비 아파트>
인터넷 (유튜브, 네이버 등)	남	- 유튜브 <정브르>, <위플레이>, <종이왕국>, <꿈도미>, <현타짱>, <밝은면>, <먹는 거에 최선을 다하는 팍맨&구리>, <공대 고질라> - 넷플릭스 <컵헤드쇼>, <가필드>, <에일리언TV>, <슈퍼자이언트 로봇 브라더스>
	여	- 유튜브 <금식왕>, <핑크퐁 유아체조>, <WooHoo>, <헤이지니>, <123 Gol Food Korean>, <정브르>, <흔한남매>, <다혹>, <다람냥>, <위플레이>, <종이왕국>, <꿈도미> ASMR - 넷플릭스 <호기심 딱지>
게임	남	없음
	여	- <인형코디>, <무한의 계단>

Table 3. Media Usage of Higher-Grade Kids during Social Living Lab

이용 매체	자녀 성별	이용 채널 및 콘텐츠 명
방송	남	- KBS <현재는 아름다워>, <1박 2일>, <동물의 왕국-노트북> - MBC <놀면 뭐하니>, <빅마우스> - SBS <굴 때리는 그녀들> - JTBC <아는 형님> - 애니프라임 <나무토>, <토리코>,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블랙 클로버>, <명탐정 코난>
	여	- MBC <심야 괴담회> - 채널A <금쪽같은 내 새끼> - KBS joy <무엇이든 물어보살>
인터넷 (유튜브, 네이버, 앱 등)	남	- 학습 플렉스 <와이즈캠프> - 유튜브 <쌈밥TV>, <래릭TV>, <포철>, <쉐어TV>, <버섯도리>, <뽕>, <동심파괴>, <Be Yblade Burst Korea>, <쫄무늬>, <웃긴 댓글>, <GMS Easy Violin>, <매직사커&풋살>, <Jumpoo>
	여	- 유튜브 <자몽타버>, <샌드랜드>, <스낵제이>, <톨킹>, <우주하마>, <레블>, <권혁수 감성>, <파니파양>, <크랩>, <입시덕후>, <잠뜰>, <YTN, 망원경에 포착된 목성>
게임	남	- <마스터X>, <포켓몬고>, <군림보>, <탕탕 특공대>, <3D 운전교실>, <지오메트리대쉬라이트>, <카트라이더>, <무한의 계단>, <알까기 매니아>, <Supreme Duelist Stickman>
	여	- <얼음맨 온라인>, <쿠키런 킹덤>, <타일스흙>

4. 연구 결과

1) 제한적, 통제적 중재의 확장

1차 모임을 통해 각 가정에서 이루어져 온 중재 방식을 살펴본 결과, 정해진 시간 동안 TV나 유튜브의 특정 채널 이용을 허용하는 제한적 이용 중재가 가장 보편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말에 1~2시간 이용하는 시간 제한 중재 방식을 주로 도입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대부분 가정에서 콘텐츠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비침입적 점검이나 권위주의적 감시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밀번호를 걸어서 노트북을 모두 잠가 놓는다’거나 컴퓨터나 핸드폰의 ‘제한설정 기능’을 이용’하는 등 기술적 중재를 통해, 자녀에게 유익할 것으로 판단되는 과학, 음악, 교육 채널 등의 채널이나 사이트만을 시청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방식의 결정이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자녀로부터 제한된 콘텐츠만 이용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뒤 시간을 제한하였다는 가정은 있었으나, 해당 콘텐츠 결정에 자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부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제한적 중재가 통제적 성격을 띠고 있음을 시사한다.

제한적, 통제적 중재가 강화되는 배경에는 어머니의 콘텐츠에 대한 불신이 존재한다. 어머니들은 전통 TV보다 인터넷 미디어에 대해 훨씬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외계인이 나오는 콘텐츠를 본 아들이 ‘평소에 이상한 행동을 한다’거나, 귀신이 등장하는 콘텐츠를 장기적으로 시청한 아이가 ‘정신병을 앓아 치료까지 받았다’, ‘내 아이는 절대 보지 못하게 해야겠다’는 전언들은 어머니들이 인터넷 미디어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드러낸다. 어머니들은 미디어 이용이 자녀들을 ‘점점 더 자극적인 것만 찾게’ 만들고, ‘스스로 절제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믿었다.

미디어에 대한 강한 불신은 가정에서 미디어 접속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는, 보다 적극적인 양상으로 전개되기도 하였다. ‘고장난 TV를 일부러 수리하지 않는다’거나, 유료 방송에 가입하지 않는 가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나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들의 스마트폰 구매를 최대한 미루는 것 역시 적극적 제한의 연장에서 실천되고 있었다. 자극적인 미디어 환경에서 자녀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머니들은 중재를 포기하고, 미디어를 완전히 차단하는 코드 커팅(cord-cutting)이나 유료TV를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미디어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하던 과거의 중재 방식이 디지털 환경에서는 보다 강력한 미디어 차단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저희는 케이블TV를 보고 있지 않아요. 아이들이 미디어에 노출이 장기적으로 될 것 같아

정규채널만 보고 있는 상태예요. 정규채널도 대체로 EBS 위주로 보고 있고, 가끔 유튜브로 영상을 보는데, 제한설정을 상당히 많이 해놓고 있어요. 유튜브는 알고리즘이나 광고를 통해서 다른 영상에 노출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많이 조심하고 있는 매체입니다. (참가자 A)

개인 핸드폰도 없고, 집에도 TV는 공영방송만 나오게 해놨어요. 저도 사실 채널이 다양하고 도움 되는 부분도 많아서 케이블을 보고 싶은데, 노출이 됐을 때 저와 저희 아이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알 수 없어서 일부러 가입을 안 하고 있어요. (참가자 E)

제한적 미디어 이용 중재를 채택하는 또 다른 이유는 중재 방식의 수월성 때문으로 판단된다. 제한적 미디어 이용 중재는 가사 업무나 직장 일 등으로 바쁜 어머니들이 효과적으로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주말에만 미디어를 이용하도록 한다는 어머니는 그 이유에 대해 ‘아이를 절제시키기 쉽다’고 응답하였고, 제한 통제를 통해 다른 시간 동안은 미디어를 ‘아예 할 수 없다고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고 답하기도 하였다. 즉, 자녀들의 미디어 이용을 손쉽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한적 미디어 이용 중재라는 것이다. 부정적 콘텐츠에 대한 노출 차단이 미디어 이용 중재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인 점은 분명하지만, 부정적 영향력의 완화를 위한 노력이나 자녀와의 소통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은 주목된다. 특히 미디어 접근만 제한할 뿐, 주어진 시간 동안 어떤 콘텐츠를 소비하는지, 혹은 콘텐츠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어머니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하였다.

집안일을 할 때 TV로 유튜브를 틀어주고 아이가 알아서 보게끔 하는데, 검색해서 보다 보면 성인들이 보는 콘텐츠도 많이 뜨더라구요. 유튜브에서 유용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음과 동시에 유해한 것도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참가자 C)

평일에는 TV나 유튜브를 아예 못 보게 해요. 일요일에 1시간~1시간 반 정도 자유롭게 자기 패드로 볼 수 있게 허용해요. 주말에만 허용하는 이유는 아이를 절제시키기 쉬워요. 저는 타이머를 정해 놓고 알람이 울리면 끄게 하고 있어요. (중략) 어떤 영상을 보는지는 잘 관찰하지 않아요. (참가자 D)

저는 보통 아이가 미디어로 어떤 것을 보는지 정도만 체크를 해요. (참가자 A)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제한적 이용 중재 방식의 전략적 도입과 달리, 적극적 시청이나 동반 시청 방식은 한시적으로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규칙적, 정기적으로 적극적 시청 및 공동 시청 중재를 실시하는 가정은 없었으며, '밥 먹을 때 가끔 뉴스를 같이 보는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에서 TV를 공동 시청하는 시간 자체가 감소하고 있고, 이러한 환경 변화가 미디어 이용 중재 방식에도 근본적 변화를 야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TV를 틀어도 아이들이 보지 않는다'라는 의견은 적어도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TV가 더 이상 공동 이용의 대상이 아님을 의미한다.

실시간TV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첫째에게 TV란 유튜브고, 둘째에게 TV란 넷플릭스에요. 엄마 아빠와 아이들이 함께 TV를 보지도 않아요. 엄마들도 비슷비슷한 콘텐츠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특정 드라마를 보고 싶은 경우가 많잖아요. 드라마 한 회를 보면 그 다음 회를 보려고 하지, 비슷한 콘텐츠를 보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더 유용하고 편한 것 같아요. (참가자 B)

저희는 TV를 틀어놓아도 아이들이 잘 보지 않아요. 가끔 만화 채널을 틀긴 하는데, 워낙 유튜브에서 자극적인 영상에 많이 노출이 돼서 그런지 시시하다며 보지 않아요. 저희도 정 규프로그램보다는 TV로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틀어요. (참가자 D)

이러한 변화에는 자녀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몫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대부분 30, 40대로, 전통 TV보다 넷플릭스나 유튜브 숏츠를 선호하며, TV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실시간으로는 잘 안 보고', 심지어 '정규 드라마는 소재가 진부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남편만 밤에 혼자 TV를 보는 정도로만 사용'한다는 언급은 앞으로의 미디어 중재 연구에 시사하는 바 크다.

제가 보면 아이들이 온전히 같이 보려고 하고, 아이들 나이 차이가 있다 보니 통일해서 같이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정하기 쉽지 않아서 TV는 아예 볼 생각을 하지 않아요.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해서 밥 먹을 때 가끔 뉴스를 같이 보는 정도예요. 드라마는 유튜브로 혼자 봐요. 요즘은 전체 다 보지 않아도 찝찝하게 뭉쳐서 볼 수 있어서 아이들이 등원

한 월요일에 2시간 정도씩 혼자 보고 있어요. (참가자 G)

저희 부부는 <심야괴담>을 보는데, 저희부부가 보니까 아이들이 같이 보게 됐어요. 처음에는 인식하지 못하고 봤는데, 남편이 아이들이 보기에 안 좋은 것 같다는 얘기를 해서 안보기 시작했어요. 자극적인 펜트하우스를 보기도 했는데, 아이들이 오면 제재를 하는 정도였고, 이젠 남편만 밤에 혼자 TV를 보는 정도로만 사용하고 있어요. (참가자 H)

TV를 실시간으로는 잘 안 보고, 혼자 있을 때 다시 보기를 보거나, 재방송을 봐요. (참가자 F)

저는 드라마나 오락프로그램을 주로 보는데, 드라마도 정규채널보다 넷플릭스나 티빙으로 많이 옮겨간 것 같아요. 방송에서 하는 정규 드라마는 소재가 진부하다, 재미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가자 A)

기존의 미디어 이용 중재 연구에 의하면(안정임, 2003; 유홍식, 2008), 어머니의 직장 근무 여부나 자녀의 연령, 성별이 미디어 이용 중재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 유일하게 자녀의 자유로운 미디어 이용을 허용한 한 어머니는 ‘아이들이 옳고 그름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지만, 한편으로는 직장 때문에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관찰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계 때문임을 인정하기도 하였다.

저는 인터넷을 마음껏 쓰게 해요.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제가 일을 하다 보니 아이들을 제재하지 못해요. 6학년 정도면 자기의 사고방식에 맞게 가져가야 하는 단계이니, 저는 그것을 스스로 절제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싶어요. 미디어가 나쁘기 보다는 아이들이 옳고 그름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참가자 F)

자녀의 성별에 따라 미디어 이용 중재에 차이가 나타나는 현상도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참가자 중 아들을 둔 어머니들은 미디어에 대한 몰입이나 중독 면에서 남아가 훨씬 취약하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태도는 아들의 미디어 이용을 강도 높게 통제하고자 하는

행위로 연결되고 있었다. 그러나 통제가 강해질수록 자녀와의 갈등 역시 커지고 있어, 중재 방식에 대한 어머니들의 고민도 깊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큰아이 같은 경우 유튜브를 너무 보고 싶어 하는데 저희가 제한을 하다 보니 잠시 자리를 비웠을 때 핸드폰을 들고 사라져 방에서 몰래 봐요. 제가 너무 제한해서 조절이 안 되는 것인지, 스스로 아이들의 충동으로 보게 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남자아이다 보니 게임이나 미디어에 더 민감한 것 같아요. 저희 아이는 영상에 한 번 몰입이 되면 제어가 안 돼요. 그만 보자 약속을 해도 조금만 더 보겠다고 하니깐 싸움이 돼요. (참가자 G)

저희 딸의 경우 성향이나 기질 자체가 본인 스스로가 절제하려고 노력하는 아이라 사실은 크게 걱정은 되지 않아요. 아이마다 다르게 적용해야겠지만, 저희 아들은 너무 많이 봐서 이 연구에 참여하기 전에 유튜브 한 달 금지령을 내렸었어요. 대신 TV로 넷플릭스 영화는 보게 해줬더니, 넷플릭스를 하루 종일 보더라고요. (참가자 H)

어린 동생이 있는 경우, 큰아이의 미디어 이용 통제 수위가 높아지거나, 인터넷 이용에 대해서 자녀가 방문한 사이트를 나중에 점검하는 권위주의적 감시 방식도 채택되고 있었다. 또한 조부모와의 TV 시청으로 중재의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점이 언급되기도 하였다.

아이가 생물 도감, 에그박사 같은 생물 관련 유튜브를 너무 좋아해서 좋아하는 유튜브 채널 5, 6개를 허용해 줬어요. 동생이 있어서 가끔 시청 기록을 확인하고 있어요. 아이가 두 명이다 보니 동생이 보지 않아야 할 콘텐츠에 빨리 노출이 돼요. 또 문제인 게, 주말에 할머니 집에 가면 어른들이 보는 프로그램을 같이 봐요. 드라마를 봤던 아이가 아닌데도 재미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친정엄마께 아이들과 분리해서 안방에서 봐주십사 부탁을 드렸어요. (참가자 B)

저희 집은 TV가 거실에 있어요. 제가 있을 때는 절대 틀지 않는데, 아들이 주말에 시댁에 갈 경우, 시부모님들이 주말 연속극을 연달아 보셔서 같이 보게 돼요. 아들의 특성상 한번 빠져들면 헤어 나오지 못해요. (참가자 C)

2) 제한적 중재의 한계와 성찰

자녀들의 미디어 이용을 2주간 관찰한 이후, 어머니들은 인터뷰에 훨씬 적극적 자세로 참여하였다. 1차 인터뷰 이후, 연구자와 지속적 소통을 통해 친밀감이 형성되었고, 무엇보다 자녀들의 미디어 이용을 면밀히 살펴본 후 미디어 중재에 관한 견해가 풍부해졌기 때문이기도 했다. 코로나 팬데믹은 직장에 근무하는 어머니들에게도 처음으로 자녀들과 '내내 같이 있으면서 구체적으로 관찰'하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를 통해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비로소 제대로 알게 되었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하였다.

관찰 기간 이후 나타난 변화 중 하나는 미디어에 대한 어머니들의 언급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특히 미디어의 영향력에 대한 평가보다는 자녀들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평가가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들은 미디어가 '그렇게 나쁜 영향만 주는 것'은 아니며, '괜한 걱정이 앞섰다'거나 '너무 예민하게 통제했다'고 고백하기도 하였다. 특히 아들을 둔 어머니들에게서 이러한 의견이 두드러졌는데, 이는 아들의 미디어 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통제해 온 것에 대한 반성으로 여겨진다.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모습은 제한적 미디어 중재가 미디어 접근 차단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적어도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부모의 허락 범위 내에서 미디어를 이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에서 제한적 중재의 효과가 검증된 것과도 일치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생각보다 아이가 유해한 매체를 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통제했구나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가자 A)

아들이 보는 콘텐츠를 관찰해본 적이 없었어요. 이번에 자세히 보다보니, 괜한 걱정이 앞섰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가자 E)

문제는 미디어 이용 시간이나 이용 채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녀들이 시청한 콘텐츠의 내용에서 발견되었다. 자녀들이 이용한 콘텐츠를 면밀히 관찰한 어머니들은 아동에게 부적절한 수위의 표현이나 묘사에 당혹감을 토로했다. 어린이 대상 콘텐츠라는 이유로 제한적 이용을 허락해 왔으나, 언어적, 신체적 폭력, 산만하고 자극적인 내용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저는 〈신비 아파트〉 만화를 이번에 처음 봤어요. 그런데 엄청 무섭고 징그러운 귀신이 나오더라고요. 딸은 무섭다고 이불을 뒤집어쓰면서도 보더라고요. (참가자 D)

악마가 사람의 영혼을 빼앗아 가는 등의 과장망측한 이야기가 소재로 많이 쓰이고, 누군가를 괴롭히며 재미있어 하는 내용이 많아서 아이의 인격 형성에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헌터짱〉이라는 채널은 구독자가 110만 명이 넘어요. 그런데 사용하는 언어에 욕설은 기본이에요. 아이들이 보는데 정신없고 산만하고 자극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화 〈캡헤드쇼〉에서 남자 형제 둘이 나오는데,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돌보다가 외출을 하면서 집에 있는 물건들을 부수지 말고, 싸우지 말라고 당부해 줘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나가자마자 “싸우지 말라 했지?”라며 둘이 싸워요. 싸우던 중 누가 벨을 눌러 나가보니 아기가 집 앞에 버려져 있는 거예요. 아기를 집에 들였더니 물건을 다 부수고 다니고, 게다가 돌아온 할아버지를 걷지도 못하는 아기가 때려요. (참가자 C)

〈에그박사〉에서는 타란툴라에서 독을 채취해서 밀웜에게 먹이는 영상을 봤는데, 미약한 생물을 흥미를 위해 죽였어요. 심지어 잘 안 죽으니 독을 더 넣고, 죽으니까 “여러분 신기한 일이 발생했습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아이가 보는 영상을 주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가자 B)

유튜브 콘텐츠 재생 중간 삽입되는 광고 역시 비판의 대상이었다. 무료 유튜브에서는 광고를 회피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콘텐츠 이용 중 폭력적, 선정적 광고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이다.

기억에 남는 게임 광고 중에 좀비를 퇴치하는데 피를 흘리는 장면도 있었고, 졸라맨 캐릭터가 등반을 하는데 총으로 쏘서 피를 흘리며 죽는 장면도 있었어요. TV에는 10시 이전에는 맥주 광고를 내보내지 않는 등 제한이 있는데, ‘유튜브는 제한이 아예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가자 A)

저도 이번 관찰을 통해 아이가 보는 영상을 함께 보면서 가장 놀란 게 광고예요. 광고가 생각보다 수위가 너무 높아요. 게임 광고인데 여자 캐릭터가 입은 옷이 성적 상품화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많이 보는 〈흔한 남매〉, 〈헤이지니〉 같은 채널에서 공통적으로 노출되는 게임이 있어요. 아이들이 해서 유익할 게 없는 게임이에요. (참가자 B)

제한적 이용 중재가 선택 소비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체득한 어머니들은 그간 자녀의 미디어 이용 중재 방식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아이가 어떤 것을 보는지 아는 것과 그 내용을 같이 보는 것은 많이 다르다’는 고백, ‘시간 통제는 임시방편’일 뿐이라는 의견은 기존 중재가 콘텐츠 수용에서 비롯되는 부정적 영향의 감소에 기여하지 못함을 인지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1차 인터뷰 때 보였던 태도, 즉, 미디어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간이나 접근 제한으로 미디어 이용을 통제해야 한다는 의견에서 사뭇 변화된 모습이다.

시간 통제는 임시방편인 것 같아요. 물리적으로 시간을 더 많이 써주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말과 시간으로 통제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참가자 H)

아이가 어떤 것을 보는지 아는 것과 그 내용을 같이 보는 것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참가자 B)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제한적 통제의 한계를 인지한 어머니들은 각자 다른 중재 방식의 필요성을 언급하기 시작하였다. 관찰 기간 동안 콘텐츠에 대해 ‘신나서 말하는 아이를 보면서 무조건 통제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라는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들이 강조한 것은 동반 시청이나 적극적 시청의 필요성이다. 어머니들은 자녀와 함께 시청하면서 비로소 자녀가 ‘무엇을 봤는지’ 이해하게 되었으며, 고전적 중재 전략인 ‘공유’와 ‘대화’가 디지털 환경에서 오히려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무엇보다 어머니들이 자율성-지식적 중재의 필요를 언급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언제든 ‘밖에서 몰래’ 미디어 이용이 가능한 환경, 알고리즘에 의한 비자발적 노출이 일상화된 환경에서는 제한적 중재만으로는 부족하며, 자녀 스스로 콘텐츠 분별력을 키우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바쁘다고 아이들이 보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옆에서 같이 봐야겠구나 싶었어요. 아이가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는지, 어떤 게 궁금한지를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미디어에서 어떤 것이 노출될지 모르니까, 아이가 유해한 매체를 접했을 때 무조건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픈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이는 못 보지만 아이가 무엇을 봤는지 체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목만 보지 말고 내용도 봐서 아이와 이야기를 많이 나눠야 할 것 같아요.

(참가자 A)

너무 통제만 했던 것 같아 좀 더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해소가 되지 않는 부분을 통제하면 밖에서 몰래하고, 그 범위가 넓어지고, 제 눈에 더 안보이게 되기 때문에 서로 간에 힘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건전하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참가자 G)

그 전에는 아이가 보는 콘텐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차단을 했다면, 이 연구를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신나서 말하는 아이를 보면서 무조건 통제 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야기 할 수 있는 공간과 여건을 만들어가는 것이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 생각해요. (참가자 F)

3) 자율성-지식적 중재와 공적 개입의 확장

어머니들이 자율성-지식적 중재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 것은 제한적 중재를 통해서 변화된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자녀들이 성장할수록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커지고, 밖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지만, 어떠한 콘텐츠를 이용하는지를 일일이 확인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초등학생 자녀가 학원이나 게임방에서 이미 부적절한 콘텐츠에 접촉한 적이 있음을 알고 있는 어머니도 있었고, 심지어 학교 수업에서 자녀의 연령대에 맞지 않는 영상물이 상영된 적이 있다고 주장하는 어머니도 있었다.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 밖 미디어 이용까지 차단하는 어머니는 없었다. 내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철저히 제한하는 것이 또래 집단과의 소통 단절이나 배제로 연결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다른 집은 다 하는데 우리 집은 왜 안 되냐’거나, ‘친구들은 다 봤더라’는 반발이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밖에서 하려고 하면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말과 시간으로 통제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참가자 H)

둘째가 다른 집은 다 하는데 우리 집은 왜 안 되냐는 불만을 제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것이 우리 집의 규칙이고, 엄마아빠는 게임에 대해서는 허용할 수 없다고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들만 못하게 하는 게 맞나 하는 의구심이 들 때

가 있어요. 남자아이들은 통제를 싫어하다 보니 더 갈등이 심해져요. 그러다 보니 부모로서 한계가 느껴지고 밖에서 몰래 하느니 집에서 어느 정도 허용해 주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참가자 G)

작년에 유행했던 오징어 게임을 저희 아이 반 친구들이 다 봤더라고요. 연령이 맞지 않아서 굳이 TV로 보지 못하게 해도, 유튜브 짤로 다 볼 수 있대요. (참가자 A)

가정 내의 중재와 더불어 이루어져야 할 사회적·제도적 조치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엄마들이 계속 옆에서 지도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아동 스스로 콘텐츠를 평가하고 유해한 콘텐츠의 영향력을 희석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공적 미디어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미디어 관련 부처 및 공공 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미디어 교육이 학교를 매개로 추진되고 있고, 그 방향도 아동의 자율적, 비판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함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어머니들의 공적 교육에 대한 요구는 학교와 가정 간의 충분한 소통이 부족함을 보여준다.

엄마들이 계속 옆에서 지도해줄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가 이 콘텐츠가 유해한지 아닌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참가자 A)

학교에서 성폭력이나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을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미디어에 대한 교육을 한다는 얘기는 못들은 것 같아요. 아동 스스로 미디어 때문에 생기는 폭력성이나 언어적인 문제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학교 선생님도 이런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참가자 C)

성인지 감수성처럼 미디어 감수성을 훈련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뿐만 아니라, 본인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교육을 해야 해요. 사회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니만큼, 콘텐츠 하나를 놓고 그것에 대해 판단해보고 의견을 나누는, 미디어 감수성에 대한 세밀하고 본격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가 곧 성이나 범죄와 관련된 부분과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참가자 F)

주목할 만한 답변 중 하나는 미디어 중독에 대응하는 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것이었다. 인터뷰가 콘텐츠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사회적, 제도적 개입으로 미디어 중독 교육을 제안한 것은 여전히 이용을 미디어의 부정적 영향의 핵심으로 인식함을 보여준다. 또한 미디어 과의존 교육은 관련 법에 따라 전공교육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이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학교에서 어떠한 미디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학교와 가정 간 소통이 충분하지 않음을 재차 확인시켜 준다.

미디어는 중독의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중독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청소년은 또래집단이라 한 명이 시작하면 크게 퍼지는 효과가 있어요. 미디어를 통한 중독 등 아이들을 훈련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참가자 H)

한 가지 더 주목되는 부분은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언급되었다는 점이다. 인터뷰 전반에서 아동 대상 콘텐츠의 유해성을 논의했으나, 콘텐츠의 유해성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제안한 어머니는 한 명에 그쳤다. 이는 미디어 이용에 대한 책임이 제작자가 아닌 소비자 개인에게 있다는 인식이 더 강함을 시사한다. 유해한 콘텐츠의 규제와 관련해서도 콘텐츠를 유통하는 플랫폼이 아닌 제작자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 기업의 책무로까지 인식이 확대되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아이들의 자율성을 언제까지 막을 수는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오히려 만드는 사람들에게 대해 제재가 있으면 어떨까 해요. 유튜브 콘텐츠를 왜 만들까에 대해 생각해봤어요. 유튜버들의 첫 번째 목적은 '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드는 사람들의 평가 중에 '연령'과 관련한 부정적인 평가가 몇 개 이상일 때는 수익률에서 얼마가 차감된다던가 하는 직접적인 제재가 있으면 제일 빨리 개선이 될 것 같아요. (참가자 B)

5. 결론 및 함의

본 연구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자녀들의 미디어 이용을 어떻게 중재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미디어의 유해성에 대한 고발이 일상화되고 있으며, 부모들도 미디어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울 정도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더욱이 미디어에 대한 노출이 영유아기로 낮아지면서 미디어 이용에 관한 부모의 중재는 과거보다 중대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본 연구는 중재가 실천되는 실제 삶의 공간에서 부모 스스로 중재를 평가하고, 성찰함으로써 오늘날의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중재 방식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그간의 연구는 문제적 콘텐츠의 영향을 중화하는 방식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받아 왔으며, 부모가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숙지하고 있으며 중재를 통해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전제하는 문제를 지녀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빈틈을 메우고 중재 연구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본 연구의 의미 있는 결과 중 하나는 초등학교 자녀를 둔 가정에서 제한적 중재가 보편화되고 있으며, 제한적 중재의 유효성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기존 연구를 통해서도 비교적 일관되게 확인되어 온 것으로, 제한적 중재가 자녀들의 미디어 소비를 감소시키는데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직업 유무, 자녀의 수, 자녀의 성별에 따라 미디어에 대한 제한이 달라지는 현상 역시 기존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 중 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제한적 중재가 점차 의도적 제로TV, 제로폰, 코드킹 등 전면적 미디어 차단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자녀 수나 성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부모의 중재가 과거보다 권위주의적, 통제적 양상을 띠는 점도 특징적이다. 이는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노출을 제어하기 어려워지는 환경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개인화된 미디어 이용이 증가하고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가 확대될수록 부모의 미디어 이용 중재가 통제적 성격을 지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전통 미디어 환경에서 도입된 적극적 시청이나 동반 시청이 간헐적으로 행해지는 데 그치고 있다는 결과 역시 흥미롭다. 대부분 가정에서 적극적 시청이나 동반 시청 사례를 찾기 어려웠으며, 적극적 시청이나 동반 시청을 규칙적,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가정은 없었다. 간혹 이러한 중재가 행해진다고 언급한 가정에서조차 TV는 저녁 식사 자리의 배경 화면 정도로만 취급될 뿐, 자녀와의 토론을 통해 비판적 수용 능력을 향상하거나 미디어의 영향력을 조절하는 목적으로 활용되지는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변화에는 자녀들의 미디어 소비 행태 변화뿐만 아니라 어머니들의 개인 미디어 선호 성향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어머니 세대가 이미 유튜브, 넷플릭스 등 개인 디바이스의 소비 집단이 되었고(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123쪽), 이와 함께 가정에서 미디어를 공동 소비하는 현상도 사라지는 듯하다.

어머니들이 자녀들의 미디어 이용을 관찰한 이후 나타난 변화로는 ‘미디어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인지’, ‘미디어 중재에 있어서의 공유와 대화의 중요성 인지’, ‘자율성-지리적 중재의 필요

성 인식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어머니들은 애니메이션 등 어린이 대상 콘텐츠에 나오는 표현의 수위와 무료 유튜브 시청 시 플레이되는 광고의 선정성과 폭력성이 초등학교생에게 적절하지 않음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그동안 실천해 온 시간 통제 같은 제한적 이용 중재의 한계를 깨닫게 되었다. 이런 결과는 이용 경험을 공유하고 자녀와 대화하는 미디어 중재 방식이 중요함을 확인시켜 준다. 또 자녀들의 미디어 이용을 경험함으로써 알고리즘에 의한 비자발적 노출이 빈번해진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서는 자율성-지리적 중재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부모들이 스스로 인지하게 됐다. 이는 부모들 대상의 미디어 교육 및 중재 방식 교육이 필요함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 본 연구는 앞으로의 미디어 이용 중재 연구 및 정책 방향에 시사하는 바 크다. 연구 측면에서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라 제한적 중재 방식이 변형되고 세분화되는 경향을 보다 세밀히 관찰해야 할 것이며, 적극적 시청과 동반 시청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미디어의 영향력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미디어 이용에 대한 부모의 중재가 제한적 양식에 집중됨으로써 야기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본 조사 결과, 가정에서 수행되는 중재는 단순히 미디어 이용을 차단하는데 목적을 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어머니들이 제한된 시간, 제한된 채널을 이용하도록 통제하는 데에 몰두해 온 것과 달리, 실제로 자녀들이 어떤 콘텐츠를 소비하는가에 대해서는 섬세하게 관찰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제한적 중재 방식을 선택한 이유가 중재의 용이성에 있었다는 점 역시 콘텐츠 소비에서 비롯되는 영향력에 어머니들이 무심하였음을 의미한다.

소셜리빙랩은 어머니들이 자녀의 미디어 이용을 동반 체험함으로써 자신이 설계한 중재 방식을 평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무엇보다 어머니들이 주력해 온 제한적 중재의 한계를 체감하고, 부모 주도적으로 대안적 중재를 모색하였다는 점은 중요하다. 소셜리빙랩에 참여한 어머니들이 자녀 스스로 콘텐츠 분별력을 키우도록 중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점은 이러한 의미에서 중요하다. 개인화된 미디어 시대에 아동의 미디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실천적 중재 방식 모색과 더불어, 이러한 중재 방식의 영향력을 검증하는 데에도 향후 연구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향후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도 시사점을 제공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미디어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부처들은 자체 조사를 통해서 부모의 중재가 아동의 미디어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상응하는 정책과제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였다. 이는 학교를 매개로 정책과제를 적용할 수 있는 아동과 달리, 부모 대상 교육 및 인식 제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접근성의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부모 대상 정책과제 대부분이 단발성 교육이나 자녀 지도 콘텐츠 제작·배포라는 점은 점

근성의 한계를 반영한다. 그러나 과정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모 대상의 심층적인 교육과 연구는 반드시 수행될 필요가 있다. EU 키즈 온라인(EU Kids Online)은 유럽집행위원회의 ‘아동을 위한 더 나은 인터넷’의 지원을 받아 추진되는 연구 이니셔티브로 설문, 초점집단인터뷰, 민족지학 등을 아우르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정 내 미디어 이용 실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해 왔다. 국내에서도 아동과 부모의 미디어 이용 및 중재 관련 이해를 확장하는 연구를 지원하고, 그 결과를 체계적인 정책과제로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부모의 중재 현장을 심층적으로 관찰하기 위하여 소셜리빙랩을 도입하였으나, 이 방법론의 관습을 엄격히 지키지는 못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연구자는 스크린 너머의 관찰자 역할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19 기간 식구들이 가정에 함께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과거보다 어머니들이 자녀를 밀도 있게 관찰할 수 있었다는 점, 어머니들의 깊이 있는 관찰 덕분에 기존 연구를 통해 포착되지 않았던 몇몇 배후들이 밝혀진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가 부여되기를 기대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방법론 면에서 지닌 한계는 분명하다.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들의 성찰이 이후의 중재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에 대해 충분히 고찰하지 못하였다. 이는 연구 기간이 약 2주라는 짧은 시간에 그쳤다는 것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어머니가 자녀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중재 방식을 스스로 경험하고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자녀의 경험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다. 자녀들의 관점에서 미디어 중재에 대한 해석이 결합되었다면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가능하였을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을 구분하여 면밀히 검토하지 못한 점도 아쉬움을 남긴다. 대부분의 어머니 참가자들은 가정의 미디어 이용 중재를 설명하면서 ‘엄마 아빠’, 혹은 ‘우리 집’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아버지와 어머니가 미디어 중재의 공동체임을 밝히기도 하였지만, 부와 모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살피지 못한 점은 연구의 한계로 남을 것이다. 앞으로 보다 장기적인 차원의 연구, 가족 구성원간 상호작용이 미디어 이용 중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일상의 회복과 더불어 방법론적 한계도 극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Ahn, J. (2003). A study on styles and determinants of parental television mediation in Korea.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47(6), 332-353. [안정임 (2003). 한국에서의 TV 시청중재 유형과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47권 6호, 332-353.]
- Ahn, J. (2008). Types of Internet mediation and its relationship with precedent variables.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22(6), 230-266. [안정임 (2008). 인터넷 이용 중재유형과 선행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학보>, 22권 6호, 230-266.]
- Ahn, J. (2013). A study on the age difference of digital media literacy. *The Korean Journal of the Learning Sciences*, 7(1), 1-21. [안정임 (2013). 연령집단에 따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 비교 연구. <학습과학연구>, 7권 1호, 1-21.]
- Bae, S., Lee, C., & Lee, J. (2020). *A study on the status of youth media use and policy response I: Elementary school student - Basic analysis report*. Sejong: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배상률·이창호·이정림(2020).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I: 초등학생-기초분석보고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Barcus, F. E. (1969). Parental influence on children's television viewing. *Television Quarterly*, 4, 63-73.
- Barkin, S., Ip, E., Richardson, I., Klinepeter, S., Finch, S., & Krcmar, M. (2006). Parental media mediation styles for children aged 2 to 11 years. *Archives of Pediatrics & Adolescent Medicine*, 160(4), 395-401.
- Brown, J. R., & Linne, O. (1976). The family as mediator of television's effects. In R. Brown (Ed.), *Children and television* (pp. 184-198). Beverly Hills, CA: Sage.
- Chen, L., Liu, X., & Tang, H. (2023). The interactive effects of parental mediation strategies in preventing cyberbullying on social media. *Psychology Research and Behavior Management*, 16, 1009-1022.
- Chen, V., & Chng, G. (2016). Active and restrictive parental mediation over time: Effects on youths' self-regulatory competencies and impulsivity. *Computers and Education*, 98, 206-212.
- Cho, Y., & Bae, J. (2010). Study on parental mediation of children's digital media use within the home environment. *Media, Gender & Culture*, 13, 37-74. [조연하·배진아 (2010).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가정 내 미디어 이용중재 연구. <미디어, 젠더 & 문화>, 13호, 37-74.]
- Choi, Y., & Lee, J. (2021). The effects of parental mediation and media literacy education on youth's use of YouTube : Focusing on the moderating role of age.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s Research, 113, 141-171. [최윤정·이종혁 (2021). 부모 중재와 미디어 교육이 청소년 유튜브 이용에 미치는 영향 : 학년에 따른 효과의 차이 분석. <방송통신연구>, 113호, 141-171.]

Clark, L. (2011). Parental mediation theory for the digital age. *Communication Theory*, 21(4), 323-343.

Corcoran, E., Shaffer, E., Warner, M., & Gabrielli, J. (2022). Associations between parental media mediation and youth attitudes about online privacy in a sample of US adolescent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37. <https://doi.org/10.1016/j.chb.2022.107423>

Fikkers, K., Piotrowski, J., & Valkenburg, P. (2017). A matter of style? Exploring the effects of parental mediation styles on early adolescents' media violence exposure and aggression. *Computers in Human Behavior*, 70, 407-415.

Franz, Y. (2015). Designing social living labs in urban research. *Info*, 17(4), 53-66.

Gardner, F. E. M. (1989). Inconsistent parenting: Is there evidence for a link with children's conduct problem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7, 223-233.

Gehlert, S., & Coleman, R. (2010). Using community-based participatory research to ameliorate health disparities. *Health and Social Work*, 35(4), 302-309.

Gentile, D., Reimer, R., Nathanson, A., Walsh, D., & Eisenmann, J. (2014). Protective effects of parental monitoring of children's media use: A prospective study. *JAMA Pediatrics*, 168(5), 479-484.

Ho, S., Lwin, M., Chen, L., & Chen, M. (2020).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parental social media mediation scale across child and parent samples. *Internet Research*, 30(2), 677-694.

Jang, J., & Kim, S. (2020).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mothers' parenting stress, mother-child interactions, and children's self-control and smart media us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41(1), 61-74. [장지우·김선희 (2020).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 유아의 자기통제력 및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이용정도 간의 구조적 관계. <아동학회지>, 41권 1호, 61-74.]

Jeong, H., Cho, B., Kwon, E., & Kim K. (2021). A study on the status of youth media use and policy response plan by Target II-A Plan to operate a social living lab centered on parental participation to support media education for teenagers and adolescents. Sejong: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정현선·조병영·권은선·김광희 (2021).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II-10대 청소년, 청소년 미디어 교육 지원을 위한 부모 참여 중심 소셜리빙랩 운영 방안.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Kim, A. (2023). Gender-based subscription characteristics and YouTube content gender relations. *Journal of*

- Korean Women's Studies*, 39(2), 241-281. [김애라(2023). 성별에 따른 유튜브의 비판적 구독 특성과 콘텐츠 내 젠더관계: 십대 구독 채널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39권 2호, 241-281.]
- Kim, H., & Chang, B. (2022). A study on the effect of parental mediation on negative perception of media : Focused on the mediation effect of generation alpha's self-control.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22(1), 126-163. [김현·장병희 (2022). 부모의 미디어 이용 중재가 미디어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알파 세대의 자기 통제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22권 1호, 126-163.]
- Kim, J., & Lee, K. (2019).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parents' media literacy, smart-media mediation, preschoolers' smart-media usage time, and social competence.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40(6), 63-76. [김지선·이강이 (2019).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 스마트미디어 중재,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시간, 사회적 유능감의 구조적 관계. <아동학회지>, 40권 6호, 63-76.]
- Kim, J., & Youn, S. (2019). How does hate speech become a business in Internet personal broadcasting?: Focusing on a talk/camcorder genre broadcast on YouTube and Afreeca TV.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33(2), 45-79. [김지수·윤석민 (2019).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혐오발언은 어떻게 비즈니스가 되는가? : 유튜브 및 아프리카TV 토크/캠방 방송에서의 여성 혐오발언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33권 2호, 45-79.]
- Ko, E., & Bai, S. (2016). The exploration of factors influencing youth's social media addiction: Focusing on SNS usage patterns & parental mediation type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3(6), 451-472. [고은혜·배상률 (2016).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 경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SNS 이용행태 및 부모중재 유형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3권 6호, 451-472.]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2017). *2017 Broadcasting Media Usage Behavior Survey*. Gwacheon: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방송통신위원회(2017). 2017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2022). *2022 Broadcasting Media Usage Behavior Survey*. Gwacheon: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방송통신위원회(2022). 2022 방송매체 이용행태 조사. 과천: 방송통신위원회.]
- Korean Press Foundation (2019). *2019 Teenage Media Use Survey*. Seoul: Korean Press Foundation. [한국언론진흥재단(2019). <2019 10대 청소년미디어이용조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Korean Press Foundation (2020). *2020 Children's Media Use Survey*. Seoul: Korean Press Foundation. [한국언론진흥재단(2020). <2020 어린이 미디어 이용조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Korean Press Foundation (2022). *Media Users in Korea 2022*. Seoul: Korean Press Foundation. [한국언론진흥재단(2022). <2022 언론수용자 조사> 서울: 한국언론진흥재단.]
- Lee, C. (2021). *Intervention method for parent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use of media for their children*. Paper presented at 2021 Autumn Regular Academic Conferences of Korean Association for Broadcasting & Telecommunication Studies, 241-259. [이창호 (2021). <초등학생 부모의 자녀 미디어 이용에 대한 중재방식>. 한국방송학회 2021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발표집, 241-259.]
- Lee, C., & Lee, Y. (2021). The effects of parents' media literacy on children's smart media immersion tendency : The mediating effects of parents' smart media mediation. *Journal of Character Education & Research*, 6(2), 169-193. [이채진·이영신 (2021). 부모의 미디어 리터러시가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몰입 경향성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미디어 중재의 매개 효과. <인성교육연구>, 6권 2호, 169-193.]
- Lee, S. (2013). Parental restrictive mediation of children's Internet use: Effective for what and for whom?. *New Media & Society*, 15(4), 466-481.
- Lee, S., & Jeon, S. (2011). Exploratory study of adolescent Internet use and parental mediation practice: Using parent-child interviews, *Media, Gender & Culture*, 17, 5-42. [이숙정·전소현 (2011). 청소년 인터넷 이용과 부모 중재 실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 & 문화>, 17호, 5-42.]
- Lee, S., Lee, H., Cho, M., & Lim, M. (2023). Effects of parenting stress on smart-media mediation: Moderating effect of media literacy.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27(3), 77-99. [이상선·이한희·조민경·임민정 (2023).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가 스마트 미디어 중재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 리터러시의 조절 효과. <유아교육학논집>, 27권 3호, 77-99.]
- Lee, S.-H., & Kim, Y.-H., The moderating effect of father's parenting participation in the effect of mother's parenting participation on children's media use. *Journal of Children's Media & Education*, 19(2), 1-16. [이소현·김윤희(2020). 어머니의 양육 참여가 유아의 미디어 이용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버지 양육 참여의 조절 효과. <어린이미디어연구>, 19권 2호, 1-16.]
- Lim, Y. (2020). The structural changes of YouTube video contents on violence. *Journal of Digital Contents Society*, 21(1), 81-88. [임연수 (2020). 폭력 관련 유튜브 영상 콘텐츠의 구조적 변화 양상. <디지털 콘텐츠학회논문지>, 21권 1호, 81-88.]
- Linder, J. R., & Werner, N. (2012). Relationally aggressive media exposure and children's normative beliefs: Does parental mediation matter?. *Family Relations*, 61(3), 488-500.
- Livingstone, S., & Helsper, E. (2008). Parental mediation of children's Internet use.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52(4), 581-599.

- Luo, K., & Kim, H. (2020). Study on the influence of media violence on children in TV animation - with 'Boonie Bears' as the center. *Cartoon & Animation Studies*, 58, 111-134. [낙곤·김홍균 (2020). TV 애니메이션 매체의 폭력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부니 베어〉를 중심으로. <만화에 애니메이션 연구>, 58호, 111-134.]
- Mattern, K. K., & Lindholm, B. W. (1985). Effect of maternal commentary in reducing aggressive impact of televised violence on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46, 133-134.
- McLeod, J. M., Fitzpatrick, M. A., Glynn, C. J., & Fallis, S. F. (1982). Television and social relations: Family influences and consequences for interpersonal behavior. In D. Pearl, L. Bouthillet, & J. Lazar (Eds.), *Television and behavior: Ten years of scientific progress and implications for the eighties* (pp. 272-286).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 Mesch, G. (2009). Parental mediation, online activities, and cyberbullying.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2(4), 387-393.
- Ministry of Science and ICT, & NIA (2022). 2022 Smartphone Overdependence Survey. Daegu: NIA.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2). <2022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대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Nathanson, A. (2001). Mediation of children's television viewing: Working toward conceptual clarity and common understanding. *Annal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ssociation*, 25(1), 115-151.
- Nathanson, A. I. (2004). Factual and evaluative approaches to modifying children's responses to violent television. *Journal of Communication*, 54, 321-336.
- Nathanson, A., & Cantor, J. (2000). Reducing the aggression-promoting effect of violent cartoons by increasing children's fictional involvement with the victim: A study of active mediation.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4(1), 125-142.
- Nikken, P. (2018). Do (pre)adolescents mind about healthy media use: Relationships with parental mediation, demographics and use of devices. *Cyberpsychology*, 12(2), article 1.
- Padilla-Walker, L. M., Coyne, S. M., & Collier, K. M. (2016). Longitudinal relations between parental media monitoring and adolescent aggression, prosocial behavior, and externalizing problems. *Journal of Adolescence*, 46, 86-97.
- Papadamou, K., Papasavva, A., Zannettou, S., Blackburn, J., Kourtellis, N., Leontiadis, I., & Sirivianos, M. (2020). Disturbed YouTube for children: Characterizing and detecting inappropriate videos targeting

young children.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AAAI Conference on Web and Social Media*, 14, 522-533.

- Park, R., & Baek, Y. (2021). Evaluating the effectiveness of parental mediation on children's media use : Propensity score matching with complex survey data.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 Studies*, 65(6), 5-46. [박인서·백영민 (2021). 어린이 미디어 이용에 관한 부모 중재 효과 연구 : 성향점수매칭을 활용한 복합설문분석. <한국언론학보>, 65권 6호, 5-46.]
- Park, S., & Moon, H. (2015). Young children's use of smart-media and variables affecting overuse displayed by a smart media child user group.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22(3), 25-45. [박소영·문혁준 (2015).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사용자군에 따른 사용실태 및 과다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인간발달연구>, 22권 3호, 25-45.]
- Rutigligano, B., Randolph, A., & Park, C. (2023). Understanding parents' self-awareness of their parenting style(s) and its influences on their parenting choices: A grounded theory study. *The Family Journal*, 31(3), 385-391.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 68-78.
- Shim, J., Kang, H., & Song, W. (2017). The effects of broadcasting rating system warnings and parental mediation types on the choice of banned TV program of youth. *Journal of Media Law*, 16(3), 101-141. [심재웅·강형철·송원숙 (2017). 방송프로그램등급제 경고자막과 청소년의 등급제 준수여부. <언론과법>, 16권 3호, 101-141.]
- Shin, S., & Kim, J. (2023). Effects of parents' intention to provide smart media on children's smart media overdependence: Focusing on the dual mediating effects of parents' smart media mediation and children's self-regulatio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44(2), 87-102. [신수아·김지현 (2023).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제공의도가 만 5세 유아의 스마트미디어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스마트미디어 중재와 유아의 자기조절력의 이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44권 2호, 87-102.]
- Shin, W., & Ismail, N. (2014). Exploring the role of parents and peers in young adolescents' risk taking on social networking sites. *Cyberpsychology, Behavior and Social Networking*, 17(9), 578-583.
- Shin, W., & Kang, H. (2016). Adolescents' privacy concerns and information disclosure online: The role of parents and the Internet. *Computers in Human Behavior*, 54, 114-123.
- Song, W., & Shim, J. (2016). The effects of parental media mediation types on adolescents' perception of the usefulness of the broadcasting rating system.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6(9),

386-395. [송원숙·심재웅 (2016). 부모의 미디어 중재유형이 청소년의 방송프로그램 등급제 실효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6권 9호, 386-395.]

Stack, E. E. (2013). *Empowerment in community-based participatory research with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Perspectives of community researchers*. Master's thesis, Portland State University. PDXScholar: Portland State University Library.

Tech Transparency Project (2023, May 16). YouTube leads young gamers to videos of guns, school shootings [On-Line]. *Tech Transparency Project*. Retrieved 10/7/23 from <https://www.techtransparencyproject.org/articles/youtube-leads-young-gamers-to-videos-of-guns-school>

Valkenburg, P., Kremer, M., Peeters, A., & Marseille, N. (1999). Developing a scale to assess three styles of television mediation: "Instructive mediation," "restrictive mediation," and "social coviewing".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43(1), 52-66.

Valkenburg, P., Piotrowski, J., Hermanns, J., & De Leeuw, R. (2013). Developing and validating the perceived parental media mediation scale: A self-determination perspective.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39(4), 445-469.

Vanwesenbeeck, I., Walrave, M., & Ponnet, K. (2016). Young adolescents and advertising on social network games: A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perceived parental media mediation, advertising literacy, and behavioral intention. *Journal of Advertising*, 45(2), 183-197.

Van der Voort, T. H. A., Nikken, P., & Van Lil, J. E. (1992). Determinants of parental guidance of children's television viewing.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36, 61-74.

Warren, R. (2005). Parental mediation of children's television viewing in low-income families. *Journal of Communication*, 55(4), 847-863.

Yu, H. (2008). A study on game mediation types and relevant variables focused on preschoolers,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their mothers.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22(1), 86-120. [유홍식 (2008). 게임중재유형 및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미취학아동·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2권 1호, 86-120.]

최초 투고일 2023년 10월 10일

게재 확정일 2023년 11월 22일

논문 수정일 2023년 11월 27일